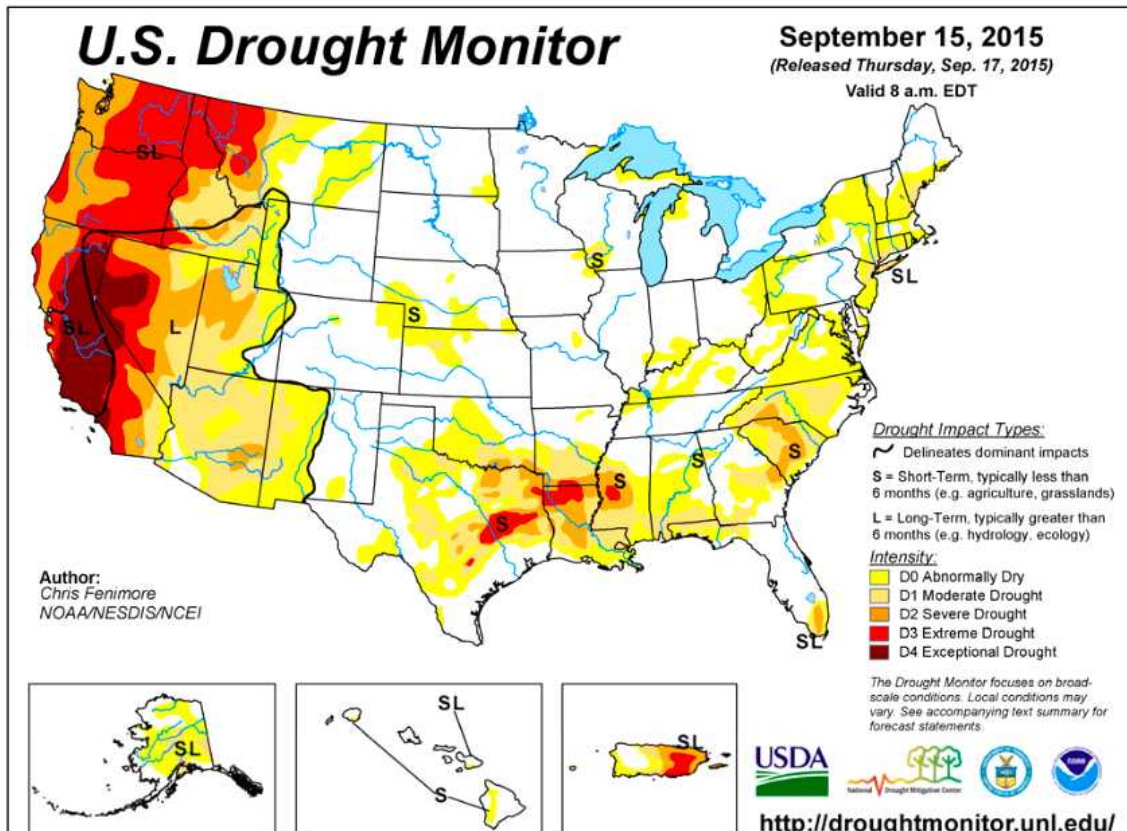


9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8)

□ 미국 기후 현황(9/3~9/19)



중부, 남부, 동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평원에서는 밀 재배자들이 파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가 온 이후 파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부와 중부-애틀란타 일대 목초지에서는 여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일대와 남부 대서양 연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다.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 재배지역에 비가 내렸다. 대평원과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작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날씨가 유지되고 있다. 북동부와 오대호 일대에서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남동부와 북서부에서는 며칠 간 서늘한 날씨가 찾아왔는데,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F 이상 기온이 낮았다. 서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렸고, 캘리포니아 남부와 내륙산간의 북쪽 지역에도 비가 집중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월 15일에 허리케인 린다(Linda)로부터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 해안을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9/14~9/20)

동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곡식들이 여물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옥수수 지대 중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평원, 옥수수지대, 북동부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4°F 이상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9월 20일 기준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94%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선 수준이다. 지난 주말까지 53%의 지역에서 옥수수가 충분히 여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13%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3%p 뒤쳐진 상황이다. 콜로라도, 아이오와, 미네소다, 네브라스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지난 한주간 20%p 이상 성숙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기준 전국적인 수확률은 10%이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는 3%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5%p 뒤쳐진 수준이며,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재배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예년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9월 20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파종률은 19%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네브라스카와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덕분에 지난 한주동안 파종률이 각각 31%p, 27%p 증가했다.

■ 면화

9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4%p 낮은 수준이다. 텍사스 남부에서는 비로 인해서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진행되고 있으며, 9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수확율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4%p 높은 수준이다.

■ 쌀

9월 20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55%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선 비슷한 수준이다. 알칸사스, 미시시피, 미주리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10%p 이상 진전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5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3%p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5%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9/13~9/19)

■ 유럽: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스페인 북쪽 지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10~75mm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10~80mm의 비가 내렸고, 비가 그친 뒤에는 덥고 건조한 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북동부 유럽에서는 2~20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지난 한주간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칸 지역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1~39°C 까지 올라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 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구소련(서부): 남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서부와 북부 곡창지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부와 북부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늘하고 맑은 날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주 후반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면서 낮 최고기온이 20~30°C 내외까지 오르내리기도 했다. 벨라루스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2~30mm). 한편, 흑해 지역의 상층부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1~3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 밖의 서부지역 일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고, 봄과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의 옥수수과 대두 재배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Heilongjiang과 Jilin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3~5°C 높은 20°C 내외의 기온이 유지되었으며, 내몽고 일대에서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어 곡식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는 10월 첫 주이며, 이 시기 직전까지 좋은 날씨가 유지된다면 수확 전망이 밝아질 수도 있다. 보다 남쪽 지역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면화와 땅콩도 잘 여물고 있다. 그 밖에 남부 전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20~75mm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전역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져 벼가 여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일본에서는 태풍 Krovahn이 해안을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 25~50mm 내외의 비를 뿌렸다.

■ 호주: 지역에 따라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밀과 보리, 카놀라는 잘 여물고 있으며, 서호주와 퀸즐랜드 남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filling stage(필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9월부터 여름 작물의 파종작업이 시작된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1°C 정도 기온이 높으며, 서부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s 등 중부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지난 한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C 정도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Entre Rios, Corrientes 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19%이다.

■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 일대에서는 지난 주 많은 비가 내린 이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동부의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등 동부지역에서는 25~1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Parana, Mato Grosso do Sul, Minas Gerais 남부 일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5°C 정도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중부-서부의 주요 곡창지대인 Mato Grosso 동부, Piaui, Maranhao, Bahia 등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맑은 날이 이어졌으며, 낮 최고기온은 40°C까지 올랐다.